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입은 소탈한 아낙네처럼...



남원 관한루 전경



글: 최병효
(주 노르웨이 대사, LA 총영사관 역임)

통 일 신라 말 중국에서 들어온 선종사상에 따라 설립된 아홉개의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최초의 사찰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보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절의 하나라는 실상사는 저 멀리 지리산 천황봉이 보이는 남원 산내면의 사골 평지에 있었다. 근래 많은 증축을 통해 짙게 화장한 여인을 연상시키는 다른 돈 많은 절과는 달리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나이든 아낙네처럼 너무나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이었다. 한 때 3000명의 승려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저 전설이었을까? 그러나 경내 전체에서 보일 듯 말 듯 진행중인 미술전시는 무언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했는데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장을 맡으며 불교개혁과 생명평화사상을 추진해온 도법스님(1966년 금산사에서 출가, 금산사 주지와 실상사 주지(1995-2004), 조계종 총무원장 대리 등)이 2013년부터 이곳 회주(법회를 주관하는 승려)로 계신다는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경내를 거닐다가 얼굴이 맑고 사심 없어 보이는 스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니 그가 바로 도법이었다.



남원 요천

실상사, 최초의 선종불교 사찰
국보로 백장암의 삼층석탑
보물로 철제여래상 등 11점
삼층탑 옆 동종, 1694년에 주조

심수관, 정유재란때 왜군에게 끌려간
조선 도공들 중 심당길이 시조
요천 건너 춘향 테마파크 옆 언덕에
도예전시관 위치... 현 15대에 심일휘씨



실상사 동종

통일신라 말기까지 불교는 경전 중심으로 불경을 잘 읽고 터득해야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에 치중함으로써 상류층과 왕권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참선을 통하여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민중불교로서의 선종불교가 중국에서 도입되면서 전국 명산에 선종사찰을 지었는데 그 중 최초의 중국에서 유래하고 돌아온 증각대사가 세운 실상사라고 한다. 47리쯤 떨어진 백장암의 삼층석탑은 국보이고 실상사 주법당으로서 비로자나불을 모신 보광전 앞의 동·서쪽 삼층석탑들, 석등, 수철화상탑(부도)과 탑비, 증각대사(홍척스님) 응묘탑과 탑비, 철제여래상, 청동입사향로, 약수암 목조 탕화 등 9점과 백장암내 석등과 청동은입사향로 등 11점이 보물이라고 한다. 삼층탑 옆 동종은 1694년에 주조했는데 이 범종에는 우리나라 지도와 일본의 지도가 새겨져 있어 이 종을 치면 일본의 경계망종을 경고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문 때문에 일제 말기에는 주지스님이 문초를 당하고 종 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타종 부위를 벗어난 일본 지도 일부는 닳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전라도 지역을 활판화한 정유재란때 왜군에 의해 절이 소실된데 따른 각성에서 그러한 지도를 범종에 새긴 것이라는 설이다. 실상사에서 함양 금계까지의 둘레길 3코스 19km는 지리산 둘레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곳이라 일부 구간을 걷고 싶었으나 같이 간 일행이 힘들어해서 대신 남원에서 점심을 하기로 하고 실상사를 떠났다. 들쭉 날은 차 없이 걸어 다니는 형편이라 한 시간 거리의 백장암 국보 삼층석탑과 보물 석등을 보지 못한 것도 유감이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옆 불자들의 협동농장에서 각종 유기농 빵을 파는데 팔빵과 호밀빵을 먹어보니 서울 어느 일류 베이커리에 도저히 뒤지지 않는 최고의 맛이었다. 의아해서 물으니 이 고장의 밀로 숙성시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기회가 되면 빵 때문이라도 다시 찾고 싶은 곳이다. 아쉬움을 남겨야 다시 오게 된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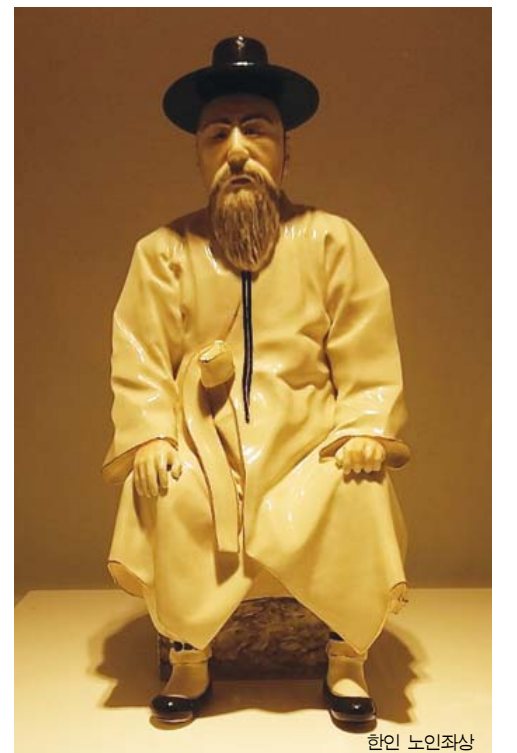
인원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남원에 내려 남원음식을 맛보고자 해마다가 광한루 뒤편의 정통 한식집 '청학동 회관'에 들려 30여분을 기다린 끝에 일품요리를 먹었다. 1999년 8월 노고단-백사골-달궁-주천을 거쳐 12시간만에 겨우 남원에 도착하니 남원경찰서장인 동창이 어느 한식집으로 안내했는데 송이버섯과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어 아직까지도 머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에 다시 그런 맛을 찾아 본 것이었다. 점심 후에 광한루에 들려 잠시 춘향예술제 농악을 보고 나오니 바로 옆에 새로 지은 거창한 한옥단지가 보여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대규모의 새 한옥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남원에촌'으로 시에서 민간문화재들에게 의뢰하여 작년에 조성한 한옥문화센터 겸 호텔이라고 하였다. 다음에는 그 한옥호텔에 꼭 묵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건너편에는 '증각집'이라는 전통 한식당도 있었다. 광한루를 나오니 또 다른 쪽은 요천이었다. 60여년전 초동 2학년 때인지 진달래꽃이 만발한 철에 잠시 남원에서 지내며 징검다리를 건너고 놀던 추억이 아련한 곳이다. 요천 뒷산에 동네 아이들과 올라가 진달래를 따먹고 놀다가 누군가가 문둥이 온다 라고 소리쳐서 쫓겨나가 빠지라고 도망쳐온 무서운 기억이 있다. 그때는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애들 간을 빼먹으니 조심하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찌 무서웠던지 평생 그 악몽이 떠나지 않는다. 다시 지은 듯한 산 위의 정자가 멀리 보였다. 이제 나이 들어 간을 빼앗길 일은 없겠으나 그 산을 바라보니 간이 서늘해지는 기분은 여전하였다. 새로 놓은 다리로 요천을 건너가니 '춘향 테마파크'와 그 옆 언덕 위에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있었다. 정유재란 때인 1597년 8월 1일부터 16일간 벌어진 남원성 전투에서 5만6000명의 왜군(사쓰마 번주 시미즈 요시히로의 대군으로 고니시 가 선봉장)에게 맞서 싸운 1만명의 조선병과 백성이 몰살 당하고 기술자들은 대거 납치되었다.



15대 심수관 심일휘씨가 만든 '시군자 화병'

심수관의 흉상이 보였다. 여러나라의 도자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세계적인 사쓰마 야기를 많이 보게 되어 뜻하지 않은 황재를 한 셈이다. 나도 두어점의 다른 사쓰마야기 화병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예술성을 유지하기 위해 25명 미만의 장인으로 운영한다는 심수관의 작품들은 워낙 고가라서 수출보다는 대부분 내수에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정유재란 당시 사쓰마 북쪽 시가현(佐賀)으로 납치된 또 다른 시가현 이삼평(李參平, 공주 또는 남원에서 납치)은 이리타(有田)에서 일본 최초로 자기를 생산하여 1650년부터 이미 유럽(화란)에 수출함으로써 일본자기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지리산 아래 사람들에서 분에 납치도록 많은 보물을 한꺼번에 보았는데 남원에서 뜻하지 않게 여러 보물을 만나게 되니 부자가 되어 돌아온 느낌이다. 역시 여행은 우리를 여러모로 풍요롭게 해주는 것임을 확인한 기분 좋은 1박2일이었다. 시간상 몇 가지 아쉬움은 두고 왔지만 요천 옆에서 원조 남원추어탕까지 먹고 밥 기차를 탔으니 적의 만족할 만한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끝>

당시 왜군들은 특히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많이 데리고 갔다. 당시 세계에서 제대로 된 자기(porcelain=1,300도 이상에서 고령토를 구운 반투명의 가볍고 강한 자기그릇)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조선뿐이었는데 예술성 높은 조선 자기 찾기에 매료되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등 지배층의 필요로 많은 자기장들을 납치해 간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유재란을 도자기 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그때 납치된 자기장중에 심당길이 현 15대 심수관으로 이어지는 일본 가고시마 현(전 사쓰마 번) 사쓰마 야기 '심수관 요窯'의 시조가 된 것이다. 1867년의 메이지 유신으로 봉건제도가 사라지고 사쓰마 번이 없어지자 12대 심수관(심수관 1831-1906)은 독립된 가마를 열고 1873년 비엔나 만국박람회에 자기를 출품하여 국제적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로 유럽에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함으로써 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14대 심수관(심해길 1926~)은 1998년 400년만의 귀향 행사를 남원에서 개최한바 있다. 지난달 3일에 15대 심수관(심일휘 1959~)이 참석하여 도예전시관 앞에 제막한 14대



한인 노인좌상